

희곡우체통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희곡우체통이 열리고 적지 않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주었다. 세상을 보는 각기 다른 방식,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는 다른 상상과 언어들을 만났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작품을 찾기 위한 통로로서 설치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각기 다른 장점을 지닌 작품들 속에서 국립극단의 무대 위에서 특별히 더 깊고, 청명한 울림을 낼 수 있는 작품을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희곡우체통이 열리고 처음으로 기고된 작품 중 3작품을 낭송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낭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라는 행위 속에서 상상했던 것들이 배우의 입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구축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세 작품들은 나름 독해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독해자들이 스스로의 독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없는 의구심을 주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작가들에게도 낭송의 자리가 쇼케이스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과 구체적 구현물 사이의 일치와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희곡우체통 프로그램에서의 작품 낭송은 거창하게 ‘낭송공연’이라 부르지 않는 형식일 것이다. 낭송이 공연이 될 때, 연출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 때 구체적인 해석이 가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낭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보다는 작품에 열려있는 가능성들이다. 더 많은 작품들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는 낭송공연이라는 무거운 형식보다는 간략한 낭송의 자리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독한 목욕」은 사회적 주제를 시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다. 인혁당사건으로 사형된 아버지를 회상하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폭력의 과거사를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꺼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작품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독특한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는 극 공간이 목욕탕이라는 점이다. 목욕은 일반적으로 제의적 장치이지만 이 작품은 비극적 제의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치유하고자 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긴장을 풀어 이완시키는 목욕탕 속에서 만나게 하는 작가의 배치가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과거사를 고발하고 그 부당함에 절규하기보다 이 작품은 고통에 감각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고통을 만져보는 것, 목욕이라는 의식은 그 감각적 다가감을 위한 장치이다. 아버지의 상처를 내가 만지고 찢어낼 때, 그때서야 내게 새겨진 상처 또한 찢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처, 고통의 이야기만큼이나 이 작품은 행복에로의 갈망으로 채워져 있다. 「고독한 목욕」은 애초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그 열망이 폭력으로 일그러지기 이전에는, 행복을 향한 열망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연히 태어나 필연히 날아가」는 「고독한 목욕」과 전혀 다른 결을 지닌 작품

이다. 몸을 파는 삶을 대물림하는 모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조금은 낡은 소재에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 극의 전개방향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결말은 또 지나치게 건강하기조차 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인물들은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형으로 흐르다가도 꿈틀거리며 살아있음을 주장한다. 작가는 인물에게 그 인물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구축된 인물은 구성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 인물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제를 보이도록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낭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괴화나무 아래」는 쉽게 읽히는 작품이 아니다. 요양원에서 살인사건과 이의 고발이라는 구체적인 극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인물들은 구체적인 발화를 하지 않는다. 동시에 인물의 언어는 감정을 만들어 내는데 동원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작가의 언어가 단지 문학적이라거나 관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어와 문장 안으로 파고들면서도 작가는 ‘극’의 구축을 방기하지 않는다. 더욱이 개인적 글쓰기처럼 보이면서도,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죄많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자청하는 인물 낙세는 우리 시대가 갖지 못한, 그리하여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일부러 끊어놓은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배우들의 목소리가 채워 극에 밀도를 더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괴화나무 아래」의 낭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다.

국립극단의 작품개발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희곡 ‘우체통’이라고 굳이 명명한 이유는 작가와 무대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국립극단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작품 수는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작품을 낭송하는 목소리들이 작가와 무대 사이를 이어주는 소란스러우면서도 나직한 대화의 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